

# 장마 지났는데 물폭탄 ... 광주 하루 강수량 최고 기록 경신

### 북쪽 차고 건조한 공기·남쪽 고온 다습한 공기 충돌로 비구름 형성

광주·전남 지역에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작 장마 기간엔 거의 내리지 않던 비가 연일 집중호우로 쏟아진데다, 예보가 아닌 중계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날씨가 긴박하게 바뀌면서다.



17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한반도 상공에는 광주·전남을 가로지르며 남서쪽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길게 늘어진 '정체 전선'이 형성되면서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에서 유입된 고온다습한 공기가 강하게 충돌한 데 따라 장마 때나 만들어지는 정체 전선이 형성됐고 이렇게 만들어진 비구름대가 광주·전남에 오래 걸치면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 기상청 설명이다.

다만, 기상청은 장마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장마 때나 형성되는 정체 전선이 일시적으로 머물러 많은 비를 뿌리는 등 영향을 미쳤다고 해서 오랜 기간 오락가락 비를 내리는 장마는 아니라는 것이다. 장마의 경우 정체 전선 뿐 아니라 태평양 고기압의 확장, 남북으로 바람이 서로 오가는 등 기후적인 요소를 고려해 판단하는데, 이번 집중호우는 다르다는 것이다.

중계 수준의 급박하게 변하는 기상 상황도 장마랑 다르다고 했다.

기상청은 이날 기습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전 10시를 기점으로 호우주의보를 발표했다가 단 10분만에 호우경보로 상황 발령하는 등 중계

수준의 예보를 하기도 했다. 전날까지도 광주에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는 예보를 내지 않았다. 기상청은 "남·북쪽에 각각 자리잡은 공기가 충돌하면서 공기가 강하게 압축되고, 불안정한 대기에 비구름이 크게 발달하는 상황에서 돌연 시간당 강수량이 폭증하면서 예측 불가한 폭우가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하루 동안 내린 비는 기상 관측 이래 역대 7월 일강수량 중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다. 오후 6시 기준 광주의 누적 강수량은 366.0mm로, 기존 7월 일강수량 1위인 335.6mm(1989년), 2위인 196mm(2009년) 등을 훌쩍 넘어섰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17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가 갑자기 내린 폭우로 도로 곳곳이 침수됐다. 백운광장 이면도로가 물에 잠겨 차량이 물에 잠기고 한 시민이 신발을 든 채 황급히 자리를 피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여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갈등

### 국힘, 후보자 전원 채택 보류

### 민주, 발목잡기 하면 절차대로

여야는 17일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도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전원에게 대한 국회 보고서 채택을 보류키로 하고 청문회가 끝난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응하지 않고 있다.

개별 후보자 단위가 아니라 국회 청문회가 모두 끝난 뒤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각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장관 후보자 11명과 국제정장에 대한 인사청문이 완료됐지만 여야 합의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진 것은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 명뿐이다.

국민의힘은 강·이 후보자와 함께 권요을 국가보훈부·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무자격 5학'으로 규정할 데서 나아가 김영춘 고용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무자격으로 규정하고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목표로 청문회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후보자들에 대한 보고서 채택마저 일괄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그간 야당의 공세가 집중됐던 강·이 후보자의 낙마를 관철하기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일괄 거부한다고 보고 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전원에게 해 보고서 채택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보고서 채택과 특정 후보자의 낙마는 거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정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약 부적격 후보자라면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내서라도 보고서 채택을 하는 게 여야 간 협치와 국정에 대한 도리"라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돼 국회에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하게 된다.

이 경우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통해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강선우·이진숙... 여성 장관후보에 고심 깊은 여권

### 인사청문회 마쳤지만 추가 의혹 대통령실 "특별한 기류변화 없다"

야권과 일부 시민사회의 거센 사퇴 요구에 직면한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지만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퇴 요구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강 후보자의 경우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여전하고 '병원 갑질'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오히려 거세지는 형국이다.

이 후보자에게는 제2차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 등이 교육 수장으로서의 결격 사유라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의 경우 당내 보좌진은 물론 여성계와 시민사회 등 진보 진영 전반으로 비토가 확산하면서 여권 기류도 당초 '엄호' 기조에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기류가 감지된다.

갑질 문제는 휘발성이 강한 이슈인 데다 거짓 해명 논란이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권 일각에서 '자진사퇴 불가피론'이 솔솔 흘러나오는 이유다.

문제가 없다며 적극 방어 태세를 구축했던 초반 모드가 청문회를 거치며 '여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로키로 선회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서 "(강 후보자 관련) 피해를 봤다는 분들의 의견을 분명히 청취해 필요가 있고, 국민 여론, 국민 눈높이를 당사자와 인사권자가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진사퇴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여권은 이 후보자에 대해서 논문 표절과 제2차 논문 가로채기 의혹 등에 대해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소명했다는 기류가 다소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은 대체로 소명됐다는 게 청문위원들의 얘기"라며 "교육부 장관을 수행 못 할 만큼 자질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공교육 수장으로서 국민 눈

높이에 부합하느냐의 문제는 여전하다.

김상욱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께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 자진 사퇴가 맞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입장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실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하면서 "아직 특별한 기류 변화가 없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인사청문 과정 중으로 모든 과정을 다 살펴보고 나서 인사권으로 답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 여론 동향이 매우 안 좋게 돌아가는 것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는 공개적인 언급과 여당의 기류 변화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강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기울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결국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결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6-중-166833호] [광고]

## 허리 통증이 심할때는

# 첨단우리병원

**허리 디스크 협착증**

미세현미경 수술  
척추 내시경 수술  
고주파 수핵 감압술  
척추 유합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1985-2025

# 40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